

의료자원			번호: IV - C - 2		
제 목	국문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 및 종합병원의 진단방사선 검사 관련 자원 및 이용 현황			
	영문	Resources of diagnostic radiology tests and their utilization in hospital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저 자 및 소 속	국문	정상훈 <sup>1)</sup> , 김성수 <sup>2)</sup> , 박기동 <sup>1)</sup> , 김용익 <sup>1)</sup>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sup>1)</sup> , 국립보건원 <sup>2)</sup>			
	영문	Sang-Hun Jung <sup>1)</sup> , Sung-Su Kim <sup>2)</sup> , Kidong Park <sup>1)</sup> , Yong-Ik Kim <sup>1)</sup>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up>1)</sup> ,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up>2)</sup>			
분 야	보건관리 의료자원-기타	발 표 자	정상훈	발표형식	구 연
			전 공 의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2월				
<p><b>목적</b>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이하 방사선) 검사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첫째, 의료기관의 방사선 관련 자원 현황 둘째, 방사선 관련 자원 이용 현황 셋째, 방사선 검사 후 판독 현황 등의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p> <p><b>방법</b> 1) 연구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 및 종합병원 167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 방사선 관련 자원 현황 자료는 구조화된 병원조사표를 이용하여 2002년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조사원이 대상 의료기관을 방문, 해당 기관의 방사선 관련 책임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수집하였다. 방사선 관련 자원 이용 자료는 같은 기간 의료기관을 방문한 조사원이 2000년 11월 방사선촬영기록 가운데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수집일수에 차등을 두어 구득하였다. 3) 분석방법 : 병원조사표와 방사선촬영기록대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SAS 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p> <p><b>결과</b> 1) 방사선과 관련 인력 및 장비 현황 자료수집 결과 병원조사표를 작성한 의료기관은 139개소였다. 의료기관당 평균 전문의 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10.7명,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 2.9명, 병원 1.2명이었다. 주당 근무시간이 29시간 이하인 방사선과 전문의 분율은 병원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방사선과 전문의 1인당 병상수는 병원이 적었다. 요양기관 종별 의료기관당 평균 방사선사 수는 37.4명, 10.4명, 1.2명이었다. 주당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방사선사 분율은 병원에서 높았으며, 방사선사 1인당 평균 병상수는 병원이 더 많았다. 의료기관 규모가 작아질수록 방사선과 전문의에 비해 방사선사의 근무시간이 길어졌으며 맡고 있는 병상수도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 의료기관당 평균 초음파 장비수는 7.8개, 3.2개, 1.1개, CT는 2.0개, 1.0개, 0.6개,</p>					

MR는 1.7개, 0.8개, 0.1개이었다. 방사선 장비 종류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규모가 커질수록 장비수는 증가하였다.

### 2) 방사선과 관련 인력 및 장비 이용현황 (분석 중)

방사선촬영기록대장을 구독한 의료기관은 70개소였다. 초음파 1대당 일평균 촬영건수는 19.1건이었고, 병원의 경우 일평균 촬영건수는 종합병원의 1/4 수준이었다. CT 1대당 일평균 촬영건수는 17.0건이었고, 병원의 일평균 촬영건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1/8, 종합병원의 1/5 수준이었다. MRI 1대당 일평균 촬영건수는 10.0건이었는데, 분석대상 병원 4곳에서는 조사 기간에 한 건의 MRI 촬영도 시행되지 않았다. 기타 모든 진단방사선 장비의 일평균 촬영 실적이 의료기관 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졌다.

UGI, Barium enema, 동맥촬영, 복부초음파, 산과초음파 등을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비율은 각각 평균 54.4%, 55.7%, 16.7%, 3.6%, 6.0%였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비해 병원에서 각각 4~15배 정도 높았다. 즉 일부 방사선 검사의 경우 의료기관 규모가 작아질수록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요양기관 종별 방사선과 전문의 1인당 일평균 초음파 검사건수는 각각 12.2건, 7.9건, 8.6건, CT는 10.5건, 5.7건, 3.8건, MRI는 6.8건, 4.1건, 0건이었다. 방사선사 1인당 일평균 초음파 검사건수는 각각 2.4건, 2.5건, 10.2건, CT는 2.0건, 1.2건, 1.9건, MRI는 1.3건, 0.9건, 6.5건이었다. 방사선과 전문의 1인당 일평균 촬영건수는 병원 및 종합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비해 적은 반면, 방사선사 1인당 일평균 촬영건수는 비슷하거나, 병원에서 오히려 더 높았다.

### 3) 촬영 후 판독 현황

진단방사선 검사의 방사선과 전문의 판독률은 병원이 기타 의료기관에 비해 낮았다. 일반 X선 촬영의 경우 방사선과 전문의 판독률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에서 90% 이상이지만, 병원의 경우 40~50% 수준이었다. CT와 MRI, 초음파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에서 방사선과 전문의 판독률이 거의 100%에 이르나, 병원은 60~80% 정도였다.

고찰

(분석 중)